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올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텃밭표심 흔들 해리스 막말변수 돌출 트럼프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지난 29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에서 유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24일 애리조나 템페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찬조연설자로 나선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의 “푸에르토리코는 쓰레기 섬” 발언이 미국 대선에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그의 말은 인종차별성 발언으로 해석되며 히스패닉은 물론 흑인 등 다른 소수인종 유권자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 캠프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푸에르토리코 음식점에 찾아가 트럼프를 비난했고, 트럼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각에선 상승세를 타며 해리스에게 역전했다는 평을 받는 트럼프에게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충격)

대선 D-5 승부 예측불허

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로 투표일을 닷새 남긴 미 대선에서 인종 문제가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이유는 트럼프에게 추격의 발판이 된 계기가 과거 민주당에 몰표를 줬던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 일부가 트럼프로 이탈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해리스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이들의 막판 재결집에 성공한다면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대선 판세가 초반빙 구도 속에 혼전을 거듭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소수인종과 노조 등의

변화가 꼽힌다.

지난 13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층에서 63%포인트, 히스패닉 유권자 사이에선 19%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다.

압도적인 해리스 지지로 보이지만,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의 표를 각각 85%포인트, 39%포인트 더 얻었다는 걸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다. 수천 표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로 돌아선 표심은 전체 선거 결과를 뒤바꿀 변수가 될 수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2면 '대선'으로 이어집니다

6·25 전쟁고아 1059명의 아버지 딘 헤스 대령, 백선엽 한미동맹상

(1917~2015)

“아버지께서 그날 내린 결정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아마 아버지께서 내린 결정 중 가장 쉬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국전쟁의 영웅이자 ‘전쟁고아의 아버지’ 고(故) 딘 헤스 대령의 장남 로렌스 헤스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이 6·25전쟁 참화 속에 목숨을 걸고 전쟁고아 1000여 명을 구해 제주로 피난시킨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로렌스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다”며 “전쟁과는 아무 상관 없으면서도 전쟁의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을 무사히 구출하고 그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전 생애를 바치셨다”고 말했다.

독사 출신 공군 파일럿 딘 헤스 대령은 1951년 1·4 후퇴 직전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서울의 전경으로 1059명을 수송기에 태워 제주도로 피신시켜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이자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다. 전쟁 뒤에도 수시로 한국을 찾아 고아들을 돌봤고 20여년간 전쟁고아 후원금 모금에도 앞장섰다. 로렌스는 “아버지는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분”이라며 “아버지는 미국과 한국을, 아이들을, 그리고 함께 비행했던 조종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고 떠올렸다.

헤스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 바우트윈 부대 지휘관



1951년 고 딘 헤스(오른쪽) 대령이 제주도 한국보육원을 방문하여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 2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에 참석한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헤스 대령의 셋째 아들 로날드 헤스, 첫째 아들 로렌스 헤스, 김용현 국방부장관(왼쪽부터). [사진 공군, 국방부]

으로 참전해 당시 공군 주력인 F-15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등 한국 공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공군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 1년간 250회 전투 출격으로 전쟁 초기 북한군 격퇴에 크게 기여했다. 1969년 예편한 헤스 대령은 2015년 97세를 일기로 타계했지만, 그가 조종했던 F-51D 무스탕 전투기에 새겨진 ‘신념의 조인’(By Faith I Fly)이라는 글귀는 한국 공군의 군가 가사로 남았다. 2017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고, 한국 공군은 매년 추모식으로 공적을 기린다.

백선엽 한미동맹상 심사위원회는 “상 취지에 가장 적합한 수상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도 전쟁고아 후원에 헌신한 공로를 기려 1951년 을지무공훈장, 60년 국민포장, 62년 소파상을 수여했다. 백선엽 한미동맹상은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의 의미를 조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이날 시상식은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 때 함께 진행됐다. 헤스 대령 유족 측에는 메달과 국방부장관 감사장, 중앙일보사가 지원하는 상금 3만 달러(약 4150만원)를 전달했다. 로렌스와 헤스 대령의 3남 로날드가 선전대신 수상했다. 유족은 고인 뜻을 기려 상금 전액을 헤스 대령이 후원했던 제주도의 한 보육원에 기부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한인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부동산 학교
수료료: \$250 (교재비: \$100)
11월 5일 화요일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계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버지니아

1 \$1,1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페어팩스 코스트코 근처에 있는 멋진 집. 업그레이드	2 \$1,30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박물관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3 \$850,000 페어팩스 싱글 방 4, 화장실 2+1, 차고 2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4 \$1,900,000 페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만우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5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6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메릴랜드

1 \$630,000 Sykesville 타운홀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년된 새 타운홀, 아주 모던하고 고급, 집 뒷편으로 숲	2 \$985,000 N. Potomac 싱글홀 방 6, 화장실 3+1, 차고 2 집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마루바닥
3 \$1,025,000 N. Potomac 싱글홀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	4 \$1,325,000 포토팩 싱글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욕

DC

1 \$1,200,000 워싱턴 디씨 SE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새집, 모던한 스타일의 고급 타운 하우스	2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고급 타운 하우스
---	---

“해리스, 일자리 비전으로 맞서야”

조합원 120만 전미철강노조 캄대변인



조합원 120만 명의 북미 최대 산업별 노조인 전미철강노조(USW)의 제스 캄(사진) 대변인은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더 분명하게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USW는 지난 7월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유세에 USW 조합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트럼프의 유세에서 불안한 일자리와 폭등한 물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지 해리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한다.” 노조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 “노조는 각 후보의 정책을 평가해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리스는 지난

4년간 벌어진 물가 상승과 국경 문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비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노동자들을 더 확신시켰어야 했다. 왜 노동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반노조·친기업’을 공격하는데. “트럼프 1기의 행적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분명히 중산층과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극소수 부유층에 혜택을 준 대규모 감세를 시행했다. 그러나 선거기간 트럼프가 사용하는 관세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논리와 수사는 불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호소력을 발휘하며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가 말하는 경제와 국경 정책이 실현 가능할지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부 노동자가 지지 후보를 정하는데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최대 흑인 유권자단체 제임스 대표



미국 최대의 흑인 유권자 정치 참여 조직인 ‘컬렉티브 팩(Collective PAC)’의 쿠엔틴 제임스(사진) 대표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놓쳐선 안 되는 기회이자, 흑인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표심이 해리스에서 이탈하는 현상과 관련해 “흑인 역시 바이든 정부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 등 경제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흑인 남성의 해리스 지지율이 낮다. “트럼프는 현실성이 낮은 계획이나 소수인종 사회를 갈라놓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왔다. 거짓말도 반복되면 다수가 믿게 된다. 트럼프는 특히 히스패닉과 아시아계가 마이너 중 나름 메이저 그룹인 흑인들의 지위를 위협한다며 소수인종 간 갈등을 조장해 표의 결집을 막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당장 생계와 고물가를 감당하며 가정을 이끌거나 힘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젊은 흑인 남성일 수밖에 없다.” 해리스가 여성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 “흑인 남성 사이에선 여성 리더십에

▲ 29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엘리프스공원에서 유세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AFP=연합뉴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적은 비율이지만 해리스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리스는 지금까지 유리천장을 극복해 왔지만, 여성과 흑인이라는 두 개의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 과제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라틴계 중시하는 건 살림살이 답 줄수있는 자가 대통령 될것”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 가르시아 전 의장



미국 최대 히스패닉(스페인어 사용 국가·지역 출신)·라틴계(중남미 출신) 단체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LULAC)의 도밍고 가르시아(사진) 전 의장은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는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표심 확보가 열쇠”라며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표를 공짜로 얻는 것처럼 당연시했다가는 11월 5일(미국 대선일) 다음 날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히스패닉·라틴계의 마음을 얻으려면 식료품·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대표를 맡은 LULAC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지난 8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가 3600만명에 달한다.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는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마음을 거뒀어야 한다. 우



리는 주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 이들의 표심 향방은.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가 많은 애리조나·네바다,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에서 이들의 표심을 얻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리스가 이들 표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더 늘려 나가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표심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 “히스패닉·라틴계 특유의 마초 문화 중 일부라고 본다. 여성 대통령 후보를 찍고 싶지 않은 히스패닉·라틴계 남성 유권자들이 꽤 있다.” 해리스의 히스패닉·라틴계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이들 유권자 표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우리 살림살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 29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것인가, 우리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놔야 한다. 트럼프는 ‘세금을 깎고 식비를 인하하겠다’고 해서 이들 일부의 표를 얻고 있다. 트럼프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있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경제다. 이민 정책도,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고사는 문제다. 식비·집세·공과금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뭔가를 해줄 대통령을 원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1면 ‘대선’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기존 지지층을 흡수하는 건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설득하는 것보다 2배의 효과를 지닌다. 양자 구도의 ‘제로섬’ 게임에서 상대의 지지자를 뺏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이후 포퓰리즘성 공약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 정책을 통해 흑인·히스패닉·노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 트럼프는 이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 ‘올인’했고, 그 결과 다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28일 분석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54%로 올라갔다. 지난 17일 해리스와 처음으로 동률을 이룬 뒤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나온 ‘푸에르토리코 발언’은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힐은 흑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푸에르토리코

발언으로 소수인종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의 관세를 재차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해리스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자신들을 믿고 투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캠프는 한 치를러프의 발언을 담은 광고를 긴급 제작해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한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 밀집지역에 방영했다.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앞서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보다 푸에르토리코에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BC 인터뷰에선 “그 코미디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주민은 600만 명으로 히스패닉계 중에서는 멕시코 출신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 40만 명이 살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1일(금) 80~48	4일(월) 72~57
2일(토) 65~43	5일(화) 79~66
3일(일) 63~48	6일(수) 80~60

10월 31일(목) 80~67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위

Larry Hogan for U.S. Senate in 2024

한인 지지자들이 (Korean-Americans for Hogan) 래리 호건 주지사를 지지하는 이유

- 한국사위 호건 주지사보다 우리의 가치와 미국에 대한 공헌을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었을 때,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근절에 앞장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지했으며, 종교기관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 공공 안전 강화, 국경 보호, 은퇴자와 스몰비즈니스 지원, 세금 감면과 경제 회복,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세계 수준의 교육 보장 등 현재 미국과 메릴랜드 주민들이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금 워싱턴이 필요한 것은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정치가 아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8년동안 제가 주지사로서 해왔던 일이며, 상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11월 5일 (화) 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미국과 메릴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락처 (240) 459-2128

PAID FOR BY HOGAN FOR MARYLAND INC

바이오 및 기술 업계의 미래를 한자리에 한국혁신센터 DC 테크 서밋 2024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한국혁신센터 워싱턴 DC(KIC DC)가 “테크 서밋 2024(Tech Summit 2024)”를 11월 1일에서 2일까지 양일간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메리어트 워싱턴 터니안 센터’에서 개최한다.

테크 서밋 2024는 KIC DC가 한미 생명과학인협회(KAPAL)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과 미국의 뛰어난 창업자, 투자자, 업계 리더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대화를 나누며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KIC DC 류시훈 센터장은 “매년 개최되는 테크서밋은 한국의 기술력 또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피치, 강연 세션,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KAPAL과 함께하여 워싱턴 DC 지역의 풍부한 바이오 및 의료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동시에 기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수 초청하여 KIC DC가 지원하는 8개 스타트업이 많은 개별 미팅을 성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테크서밋 2024는 크게 IR피치 대회, 강연 세션, 네트워킹으로 이뤄진다. IR피치 대회는 11월 1일 오후 3시



부터 진행된다. KIC DC가 직접 육성하는 한국 스타트업 8개 외에도 2개 스타트업이 합류하여 총 10개 기업이 5분 길이의 IR피치를 발표하며, KIC DC 류시훈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며 가장 뛰어난 IR피치를 한 3개 기업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강연 세션은 양일간 다방면의 연사들이 각각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할 계획이다. 1일차에는 메릴랜드 한인 생명 과학자 모임(KLAM), 코트라(KOTRA) 등 여러 기관이 주관하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2일차에는 미국 비즈니스 생태계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연사를 초청하였다. 주요 연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전 부학장 짐 정, M&T은행 김 정애 이사, KIC DC 고문 류승완 박사, 아델파이 벤처스 정태홍 대표와 아치벤처파트너스 루시야나 보리오 파트너 등이다.

장소: 9751 Washingtonian Blvd, Gaithersburg, MD 20878

행사 웹사이트: <https://KAC2024.eventbrite.com>
문의: minsong@kicdc.org

김옥미 기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제거 정당”

연방대법원, VA 정부 손 들어줘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수) 버지니아 법무부의 긴급항고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연방지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었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 소법원에 법원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 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사진)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버지니아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은 소냐 소토마이어 등 민주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이들도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으며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VA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방문

오는 11월5일 대선 및 종합선거를 앞두고 버지니아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워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를 방문해 지지를 당부했다.

교회를 찾은 정치인은 버지니아 제10지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한 수하스 스부라마니얌 주상원의원 등 10여명이다. 류응렬 목사는 예배 시작 20분 전에 이들 정치인들과 회의실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류 목사는 “정치인들이 지역주민 특히 한인동포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은 예배 시간에 한 사람씩 일일이 호명을 받았으며 성도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성도들은 특히 교회가



VA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및 관계자들이 류응렬 목사(뒷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와 기념촬영을 했다.

워싱턴 셸리 디스트릭 수퍼바이저 케 이시 스미스의 등장에 더 큰 박수를 보냈다.

커뮤니티 사역원을 섬기는 유병구 장로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블레싱파크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한인사회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미 기자

불체자 친척 있는 미국민 ‘2200만명’ “추방 문제에 민감, 해리스 지지 가능성 커”

오는 11월 대선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가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이지만, 2200만 가구가 최소 1명 이상의 불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이지만,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은 9% 이상,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에서는 5.5%에 달한다.

특히 격전지 불법체류자 가구는 최근 10년래 월경한 구성원과 20년 이상 체류해 시민권을 얻은 구성원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8월 이후 전국 여론조사의 96% 이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5% 이내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가족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

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일부 구간의 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

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88%가 불체자 대량 추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27%만이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인 불체자 수용정책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온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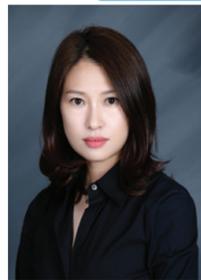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JTBC, 2026·2030 월드컵 중계권 확보

지상파 이외 채널로는 처음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 2026년과 2030년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

FIFA는 29일(한국시간) 중앙그룹과 월드컵 중계권 조인식을 했다.

이로써 중앙그룹은 2026년 월드컵과 100주년 대회인 2030년 월드컵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2027년 여자 월드컵은 물론, 내년과

2027년에 이어지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중계 권리도 포함됐다.

지상파 이외의 채널에서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FIFA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인에게 역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최고의 월드컵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본선 진출팀이 48개 나라로 늘어난다.

홍지용 기자



타임스퀘어에 한국 불닭 소스 광고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지난 23일부터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불닭 소스'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닭 소스 광고는 매일 864차례씩 4주 동안 2만4000여 회가 노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옥외광고를 필두로 글로벌 캠페인 '스플래시 불닭'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7일부터는 LA지역에서 소비자가 사용 중인 소스 제품을 가져오면 불닭 소스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 제공]

“음식 전쟁에서도 LA가 뉴욕 압도”

월드시리즈 다저스 선전에 LAT, 두 도시 음식 맛 비교 “한인타운 가장 큰 자랑거리”

월드시리즈에서 LA다저스가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양 도시 간의 치열한 ‘음식전쟁’도 LA가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LA타임스(LAT)는 LA가 뉴욕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음식들을 갖추고 있다며 항목별로 설명하는 기사(사진)를 게재했다.

기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음식에 대한 부분이다. LAT는 “LA의 코리아타운이 더 크고 더 윤택하고 더 밝다”며 “뉴욕 코리아타운보다 더 나은 게 확실하고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스퀘어마일 안에 가득 차 있는 한식당 중에는 한국 각지의 향토 음식부터 단 하나의 품목을 위해 운영하는 곳까지 있어 “LA 시민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덧붙였다.

LAT는 지난 3월 발행한 LA 한인타



운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을 선별해 소개한 특집 기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LA를 가장 싫어하는 뉴욕코조차 LA의 한국음식이 훨씬 더 낫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집 기사를 통해서는 라우더스, 치즐리에, 팔통치킨, 비비큐치킨 등의 치킨집과 오리진 코리아 바비큐, 야가씨 곱창, 북새통, 해장촌, 길목, 박대감네, 숯불집 등의 구이집이 소개됐다.

LAT는 한식에 더해 다른 음식도 뉴욕보다는 LA가 훨씬 더 앞선다고 강조했다. 뉴욕커들은 뉴욕의 베이글과 피자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의 LA 베이글과 더 다

채로운 스타일을 지닌 LA 피자가 뉴욕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뉴욕이 자랑하는 웨이크셰 버거와 서부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앤아웃 버거를 비교해도 ‘마술과도 같은 맛’을 지닌 스프레드 소스가 함께 하는 인앤아웃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LA와 뉴욕의 음식 대결에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핫도그와 타코의 대결이었다.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트리트 푸드의 대명사를 비교한 것이다. LAT는 가주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멕시코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는 주고 전체의 30%가 가주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LA에 있는 어느 동네를 가도 볼 수 있는 타코 스탠드나 트럭에 있는 타코는 맛과 가격에서 핫도그와 견줄 수 없다며 수천 개가 넘는 타코집이 LA의 우위를 굳혀준다고 말했다.

LAT의 기사는 짤막한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더 이상의 논쟁은 없다. LA는 뉴욕보다 더 나은 미식의 도시다. 다저스 파이팅!”

조원희 기자

대선 앞두고 미국인 경제 전망 낙관적

“전년대비 100만건 더 비자 인터뷰 늘릴 것”

연방정부 관광산업 지원

연방정부는 현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전년도 대비 100만건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역대 가장 많았던 2024회계연도보다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이번 회계연도에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4회계연도의 비자 인터뷰 건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15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2026년 축구 북중미월드컵, 2028년 LA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2031년 럭비 월드컵 등 앞으로 미국에서 열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미국을 찾을 사람들이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몬도 상무 장관은 “여행·관광 산업은 미국인 일자리 1000만개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조사 신뢰지수 빠른 속도로 상승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국내소비자가 향후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설문 조사가 나왔다. 컨퍼런스보드의 최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와 대부분 소득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다나 피터슨 컨퍼런스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도 2022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며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믿는 소비자 비율도 마찬가지로”라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최근 주식 시장 상승과 낮은 이자율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고가 제품을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일자리 시장에 대한 불안이 소비자 신뢰에 부담을 주었지만 그 후 경제 데이터가 견고함을 보여주었다”며 “이를 주목해 경제 분위기가 호전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최고 경제 고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실질 소득 성장, 강력한 고용시장, 팬데믹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허리케인과 노동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 10월에 예상보다 부정적인 일자리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로버트 프리크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신뢰는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론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주 발표되는 10월 일자리 보고서에 따라 국내 경제 분위기가 계속 개선되는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영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전기차 리스값 끝없는 추락

다운페이 포함 200불까지 하락
닛산·혼다·렉서스·현대차 등
재고 처분 위해 인센티브 경쟁탕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EV) 인센토 리 처분에 나서면서 일부 모델의 리스 가격이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보다 크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자동차매매 플랫폼 카스다이렉트가 지난 22일 기준 전국의 EV 리스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일부 모델은 다운페이먼트까지 고려한 월 리스 비용이 200달러 전후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HEV 및 PHEV 모델들의 총 리스비용은 월 400달러 전후에 달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EV 리스 딜은 덴버 지역의 닛산 2024년형 리프 S 40kWh 트림으로 계약시 다운페이먼트 2529달러에 월 리스비용이 36개월간 매달 109달러였다. 다운페이먼트를 포함한 총 리스비용을 계산하면 월 179달러에 불과하다. 이어 닛산 2024년형 아리아 인게이지 63kWh 트림이 3329달러 다운페이에 36개월간 매달 99달러로 총 리스비용은 월 238달러로 떨어진다.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혼다의 첫 전기차 모델인 2024년형 프롤로

그 EX 트림은 1299달러 다운페이에 36개월간 월 259달러로 총 리스비용이 매달 295달러다.

지난달보다 매달 30달러가 더 내려간 가격으로 업체권장가격(MSRP)이 4만8795달러임을 고려하면 매우 좋은 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렉서스의 첫 EV인 2024년형 RZ 300e 프리미엄 트림은 1만6500달러 리스 캐시 인센티브가 제공돼 1999달러 다운페이에 36개월간 월 399달러다. 콜로라도주는 주정부 인센티브까지 적용돼 다운페이 없이 월 299달러만 내면 된다. 7500달러 리스 보너스 캐시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도 경쟁력 있는 EV 리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 2024년형 아이오닉 5 SE 스탠다드 트림은 3999달러 다운페이에 24개월간 월 159달러만 지불하면 돼 총 리스비

용이 월 326달러로 떨어진다. 특히 현대는 깜짝 리스 이벤트로 이달 말까지 SE 롱레인지 트림을 다운페이 없이 13개월간 월 399달러에 제공하고 있다.

기아 2024년형 니로 윈드 트림은 3999달러 다운페이에 24개월간 월 169달러로 총 리스비용이 월 336달러로 떨어지며 2024년형 EV6 라이트 롱레인지 RWD 트림도 3999달러 다운페이에 24개월간 월 179달러로 월 346달러로 떨어진다. 스바루 2024년형 솔테라 프리미엄 트림은 279달러 다운페이에 36개월간 월 279달러로 총 리스비용이 월 287달러다.

카스다이렉트는 제조업체들의 인센티브로 인해 EV가 개스차 모델보다 리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면서 매달 새로운 리스 프로그램이 출시되기 때문에 각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

남편과 불륜한 가정부, 살인혐의 유죄 인정

공모해서 살해했는지 여부 쟁점

브라질에서 가정부 J 비자로 미국에 온 여성이 주인집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고 부인과 다른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줄리아나 페레스 마가하에스(24)는 지난 29일(화)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셉 라이언(39)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가 크리스틴 밴필드(37)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23년 2월 24일 페어팩스 카운티 헌터에 위치한 밴필드의 집에서 라이언을 총격살해했다. 피고는 2년전 가정부 J 비자로 밴필드의 집에 고용돼 일해왔다.

사건 발생 당일 피고는 밴필드의 4세 딸과 함께 동물원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출발했다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다. 때마침 크리스틴의 남편 브랜던 밴필드가 맥도날드에서 아침식사를 사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던 차였다. 피고와 브랜던은 라이언이 집으로 침입해 크리스틴의 목을 수차례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브랜던이 1차적으로 총격을 가해 라이언을 쓰러뜨렸다.



이후 두 남성이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피고가 라이언의 가슴에 총격을 가해 사망하고 말았다.

크리스틴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선고를 받고 말았다.

경찰당국은 수사 끝에 우연을 가장한 계획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 발생 두달전 피고와 브랜던이 한 총기사격장 검총기판매상을 방문해 사격 연습을 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권총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브랜던 밴필드는 연방국세청(IRS) 경찰국 소속 요원으로 알려졌는데, 피고와 함께 뉴욕으로 밀월 여행을 가는 등 불륜관계였다.

김옥재 기자

항공편 지연·취소시 현금 환불

연방교통부 새 규정 발효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면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교통부는 항공편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취소됐을 때 승객에 대한 보상을 바꾸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지난 28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교통부 측은 이번 연말

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크레딧 카드로 항공편을 구입한 승객에게는 7영업일 이내로, 그 외의 지불수단을 통해 산 승객에게는 20일 안에 환불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항공사 측은 반드시 승객에게 환불 관련한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

조원희 기자



워싱턴 지역 4개 명문고 골프대회 “서울고 2년 연속 우승”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서울, 경기, 경북, 용산) 출신 워싱턴 동문들이 지난 26일 게인스빌 소재 헤리티지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대회를 가졌다. 경기도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며 기쁨을 만끽했다.

김윤미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NC**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러조울)
웨이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러조울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670; MD 25016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670; PA 106823; FL ML2525; SC 25016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670
www.nmlsconsumeraccess.org

“증오발언이 쓰레기라는 것”

바이든 발언 논란 진화

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쓰레기 발언’ 논란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지지자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도 쓰레기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년여일 동안 증오에 찬수사가 있을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것은 푸에르토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바이든

코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를 쏟아낸 특정 코미디언의 발언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한

코미디언이 지지 연설하면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쓰레기 섬”이라고 발언해 민주당 등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발언과 관련, “그들(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훌륭하고 명예로운 사람들”이라면서 “내가 보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트럼프)의 지지자들뿐”이라면서 “라틴계를 악마화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며 미국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쓰레기로 칭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의 지지자가 쏟아낸 혐오 수사를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면서 “이것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우크라-러 몰래 협상”

일단 에너지 의제지만 확대 가능성 주목

“협상 따라 이미 일부 타격빈도!” 쿠르스크 상황이 핵심변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기간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중단하는 데 대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긴장완화 조치로서 휴전 협상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를 포함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지난 8월 중단된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또 최근 이미 양국이 정보기관 합작에 따라 서로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빈도를 줄였다고도 전했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카타르의 중재로 에너지, 전력 기반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중단하는 합의에 대해 비밀리에 협상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공격하면서 협상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1년 넘게 순항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공격해왔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발전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을 유발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해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정유 공장 및 저장소 등이 불에 탔고, 이는 러시아의 정유를 15%가량 감소시켜 전세계 유가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작년 가을에

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지난 겨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2~3월 다시 러시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재개했고 이 암묵적 합의는 깨졌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이번에 합의가 나온다면 2022년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중요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며 앞으로 공식적인 휴전 협상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미 양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도 쿠르스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 크렘린 고위 당국자는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몰아내기 전까지는 이번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러시아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정유 시설 등의 목표물을 계속 공격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협상을 압박할 레버리지(영향력)가 많지 않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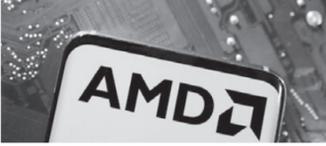
멕시코 철강공장서 폭발사고 최소 12명 사망

멕시코 중부 툴라스칼라주의 한 철강 공장서 30일(현지시간)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주 시민보호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공장이 철강 제조업체인 시멕스(SIMEX) 소유이며, 이번 폭발은 제련 장치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대항마’ AMD,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에 주가 9% ↓

4분기 매출 월가 전망보다 낮아 엔비디아·TSMC도 1%대 하락



이날 급락은 전날 발표한 4분기 실적 전망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MD는 지난 3분기 매출의 경우 68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가 전망치 67억1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0.92달러)도 모두 월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그러나 올 4분기 매출 전망을 75억 달러로 제시하며 월가의 예상치 75억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AMD는 올해 인공지능(AI) 칩 판매 규모가 5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혀 전망치인 45억 달러를 상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나 “시장은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MD의 AI 칩인 ‘MI300’ 시리즈의 매출이 빠른 증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MD의 급락은 다른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1.51% 떨어졌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와 브로드컴 주가는 각각 1.49%와 1.08%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주가가 30일 월가의 예상치보다 낮은 4분기(10~12월) 실적 전망에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1분(서부 시간 오전 8시 51분) AMD 주가는 전날보다 9.76% 급락한 150.02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주가는 약 8% 하락한 152.81달러에 출발해 한때 150달러를 하회하는 등 큰 폭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헤즈볼라 새 수장 “전쟁의 길에 계속 남겠다”

“영토 방어 위해 이스라엘과 싸워”



지 치른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수일, 수주, 수개월도 더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방 언론에서 헤즈볼라는 이란의 ‘가장 견고한 대리군’으로 불리지만 이란 군부와 정부는 헤즈볼라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카셈 사무총장은 또 전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세운 의제를 따를 계획이라며 “이스라엘이 침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조건 하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새 수장이 된 나임 카셈(사진)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셈 사무총장은 이날 알마나르TV가 방영한 사전 녹화 연설에서 “헤즈볼라는 누구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정치적 틀 안에서 싸인 우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의 길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우리를 지원하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레바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줄이려면 우리 땅에서 당장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아직 수용 가능한 제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조직의 이인자였던 그는 지난달 27일 나스랄라 피살 이후 한 달여간 사실상 조직을 이끌어 오다 전날 수장 격인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총장 자격으로는 이번이 첫 연설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와 주변 마을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고서 4시간 만에 공습했다.

대피령 직후 수천명이 이 지역을 빠져나갔으며 인명 피해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나바티예를 비롯한 레바논 남부의 여러 마을에도 새 대피령을 내렸다. 이 지역은 이미 몇 주 전에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다.

이스라엘 지상군도 남부 키암 마을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남부 주요 지역에서 더욱 깊숙이 이동하고 있다고 레바논 현지 언론이 전했다.

레바논 국영 뉴스통신 NNA는 “전투기, 드론, 포병의 집중포화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진입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나바티예에서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특수작전 부대 라드완의 부사령관 무스타파와 아마드 샤하디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샤하디는 시리아에서 라드완의 작전을 지휘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테러 공격을 감독했다”고 주장했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택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성명서

Statement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성명서 Urgent Statement against North Korean Military Involvement in the Ukraine War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대다수의 미주 270 만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도적 차원, 국제 평화, 그리고 지역 안정을 고려하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FKAUSA)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the 2.7 million Korean Americans, opposes North Korean military involvement in the conflict between Ukraine and Russia for humanitarian reasons, international peace, and regional stability.

하나. 북한군의 군사 개입은 국제법과 주권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무력 사용은 국제 사회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으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개입에 적극 반대한다.

The intervention of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s a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peaceful relations between sovereign nations. All nations respect the sovereignty of other nations, and the use of force can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ctively oppose Nor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Ukraine war.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할 경우, 지역 및 국제적인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는 잔혹한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며,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것이다. 우리는 이에 적극 반대한다.

If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engage in the Ukraine War, regional and international tensions could be further elevated. This would result in a brutal humanitarian crisis and further suffering for countless civilians who are already in sufferings. We actively oppose Nor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Ukraine war.

하나. 북한의 군사적 개입은 전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국제 사회 전반의 안전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통해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개입을 적극 반대한다.

North Korea's military involvement would trigger a global arms race, which could result in the overall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believe that the conflict must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s. We actively oppose Nor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Ukraine war.

하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개입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와 같은 더 중요한 사안들이 국제 사회에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국제적 관계의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권 친화적인 정책과 전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The involvement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the Ukraine war will not only depri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opportunity to highlight important issues such as human rights issues within North Korea, but also isolate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e emphasize the need for human rights-friendly policies an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worldwide.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정부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평화적인 해결책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Therefore, the FKAUSA request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military refrain from intervening in the Ukraine war and urge them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 peaceful solution.

끝으로, 우리는 모든 국가가 평화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북한군의 불필요한 군사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한다.

Finally, the FKAUSA hopes that all countries will move towar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peace and dialogue, and We strongly oppose and condemn North Korea's military intervention.

October 28, 2024

총회장 서정일 / 이사장 김일진 / 임원 & 회원

President Tom Chong-Il Suh / Chairman Don Kim / Officers & Members

미주한인회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U.S.A.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평화도 위협하는 북·러 야합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의 병력을 보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민간 트럭까지 동원해 북한군을 최전선으로 신속히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국경에서 40~60 km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정치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파병에 대해 논의하려고 30일(현지시간) 열린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러시아가 손잡는 게 대수롭지 않을까. 결코 아니다. 두 국가의 ‘불장난’이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냉전’ 대결 구도가 분명히 그려지게 된다. 북한군 파병은 자칫 미국·나토의 더 적극적 개입을 부를 수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커진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로 핵·미사일을 고도화한다면 한국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도 위협할 수 있다. 핵 확산 금지(NPT) 체제가 무너진다. 북한이 외화를 벌려고 핵·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혈맹’으로 묶이게 될 러시아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할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다. 또 북핵을 해결할 수단인 대북 제재망은 러시아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사실상 무력화하게 된다. 실전으로 단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군 경보병. 경무장에 도보로 기동하며 방탄모를 쓰지 않는다.

[조선중앙TV 캡처]

련된 북한군도 부담이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할까. ‘총알받이’로 남의 전쟁에 끌려가 결국 ‘대포밥’으로 생을 끝낼 공산이 크다.

파병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 전개 중이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에 더 집중하면서 쿠르스크에서 전력이 모자란 데 이를 북한군이 메우고 있다. ‘무력침공을 받으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북·러 조약 4조에 따른 조처라고 우길 수도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무기로 무장했다. 독립 부대로 편제되지 않고, 러시아 부대 아래로 들어갔다. 양국은 연합훈련으로 합을 맞춰본 적이 없다. 북·러는 언어가 다르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급하게 배웠지만, 러시아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군 30명에 통역사 1명을 붙이며, 러

북한군 1만 명 러시아 파병 쿠르스크 최전선에 속속 배치 남의 전쟁 위한 ‘총알받이’ 신세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시아군 3명도 함께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동맹군’으로 대우할 성싶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환경이 한반도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현지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북한군을 쿠르스크로 보낸 것을 보면 그렇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죄수로 꾸러진 항발대대(Storm-Z)처럼 써먹으려는 듯하다. 항발대대는 10~15일 기본적 훈련만 받고 바로 전투에 나간다. 적의 사격을 유도해 우크라이나 방어진의 위치를 드러내는 게 임무다. 그래서 생존율은 7%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파병 병력이 ‘폭풍군단’ 또는 ‘11군단’이라 불리는

특수부대가 중심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옛된 모습의 파병 북한군은 소속만 특수부대지 실제로는 경보병으로 보인다. 유사시 무탈로 산을 타고 한국 후방으로 침투해 교란전을 펴는 부대다. 그래서 중화기가 없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원에서 참호를 파고 화력을 주고받는 소모전이다. 드론이 늘 날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공격하는 21세기 전쟁이다. 북한군이 참호를 박차고 나가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포화를 뒤집어쓰기에 심상이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북한군이 파병 규모를 늘려도 ‘알보병’이라 보급은 물론 화력도 러시아에 계속 의존해야만 한다”며 “러시아가 북한군을 챙겨줄 여력도, 의사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파병 여부에 대해 북한은 “그런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외무성 입장)이라고 흐리터분하게 둘러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파병 소식을 쉬

쉬하고 있다. 군 장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장병에게 “훈련을 간다”고 가족에게 거짓말하라고 지시했다. 파병 장병의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하자 이들을 다른 곳에 격리했다. 그래도 알음알음 퍼져 “왜 남의 나라에서 희생해야 하나”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대표를 지낸 문상근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무인기로 트집을 걸고 남북 연결로를 폭파하면서 긴장감을 높여 내부를 단속하려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북한군 희생이 커지면 북한 체제가 동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러시아 파병은 김정인에게 도박이다.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어 독재 체제를 지킨다는 데 크게 걸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한다면 승산이 높아진다고도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딸 판돈을 줄이는 데 우리의 대응 전략이 시작한다. 북한 내부에 파병 소식을 널리 알리고, 파병 북한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야 한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무기 제공도 방법이다. 러시아가 억박지르지만, 한국을 내치는 게 쉽지가 않다. 종전 후 경제를 되살리려면 러시아는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관여는 나토를 우군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나토는 북한 파병으로 한반도 상황을 유럽의 안보와 동조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제 북·러 야합은 한국의 실존 위기다.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이 답이다.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검찰 위기설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이후 야당의 압박이 전례 없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책임자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을 추진 중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시장이 산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온다. 조직을 아예 없애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위기설이 생산·유통되는 게 당연하다.

야당발 검찰 위기설은 과장된 측면도 있다. 우선 검찰청 폐지법안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게 명백한 만큼,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사검사

탄핵 역시 야당 입장에서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다. 설령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직 전체의 위기라고 하긴 어렵다.

오히려 검찰 위기설의 실체적 단면을 보여준 건 7월 말부터 진행된 중인 티몬·위메프(티메프) 수사다. 검찰의 티메프 수사는 지난 10일 구영배 쿠팡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되며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중앙지검 내부에선 “피해자만 수십만 명인데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

검찰 위기설과 티메프 수사



검찰이 8월 위메프 사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연합뉴스]

한 것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검찰 안팎에선 결과에 놀란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검찰총장 지시로 정예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두 달 넘게 진행한 중간 수사결과에 법원의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구영배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다룰 여지가 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각각 영향을 미쳤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징후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검찰이 처리한 피의자 수는 2019년 236만1611명에서 지난해 150만2925명까지 줄었지만, 3개월이 초과돼 사건을 처리한 비율은 외려 6.8%에서 10.2%로 대폭 늘었다. 티메프 수사 역시 어느새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 수사가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범죄 대응 DNA가 약해졌다. 요즘 우리 조직의 문제”(수도권 부장검사)라는 내부 진단이 나온다. 본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 더 이상 불신이 커지기 전에 수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영익 사회부 기자**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OCT. 31st - NOV. 7th, 2024

정성담아 빛깔 좋은

태양초 고춧가루

MOM MOM RED HOT PEPPER POWDER



Don't miss this chance!

맘맘 태양초 고춧가루
MOM MOM RED HOT PEPPER POWDER

~~\$21.99~~ **\$16.99** 5 LB

관점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 품절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6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6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 Elden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8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러시아 파병 북한군 최소 1만1000명”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밝혀
“북한군 분석팀 우크라이나 파견 필요”
푸틴 최측근 쇼이구 최근 반복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중 3000명 이상은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연말까지 총 1만9000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미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땅을 밟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선 가까이 이동한 3000명의 북한군이 어디로 투입됐는지에 대해선 “몇 군데로 나눠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본다”며 “전방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부는 도네츠크 남부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최근

북한을 다시 다녀왔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정보당국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되자 러시아 쇼이구 서기가 10월 23~2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북·러가) 긴급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하면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어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전환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활동과 전환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주된 동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라며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을 갔다 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이나 전방 부대 군인이 강제 차출에 대해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입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등 발사 준비를 끝마쳤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대선을 앞두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본격적인 ‘판돈 올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가운데 우주발사체(SLV) 기술에서의 군사협력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ICBM 텔(TEL·이동식 발사대)은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미 대선을 겨냥해 11월 ICBM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인 화성-18형의 경우 TEL 위에 결합한 원통형 발사관(캐니스터)에서 발사한다. 언제든 지 기습적으로 쏠 수 있어 김정은이 결심하면 하루이틀 안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대한 지상 연습 시범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이 올해 중 3기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차례 추가 시도를 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발사

장소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체가 기립하거나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발사 압박’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오고 간 인원들, 전략적 협력 사안 등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 진전되고 개량된 수준의 정찰위성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든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도 이날 국감에서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미 연합작계, 핵전쟁 기반으로 발전=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안에도 처음으로 합의했다. 현재 연합 작전계획을 ‘핵전쟁’ 기반 작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에 힘입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가능성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다.

허진·이유정 기자, 위성팀=이근평 기자



러, 육해공 3대 핵전력 시위 러시아는 지난 26일 핵 타격 훈련을 내세워 3대 핵전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탑재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다. 이날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 기지에서 발사되는 야르스 ICBM(큰 사천)과 핵 탑재가 가능한 Tu-95 전략폭격기의 이륙 준비 모습(작은 사진). [EPA·AP=연합뉴스]

거세지는 무역전쟁...EU, 중국산 전기차에 45.3% ‘관세폭탄’

(최고)

신(新)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에선 전기차가 그 진원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상하이자동차(SAIC)는 최고 관세율인 45.3%를 적용받는다. 지리자동차는 28.8%, BYD는 27%다. EU는 자체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관세율을 정했다.

집행위는 “중국 내 전기차 밸류체인(가치 사슬)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도움으로 가격을 낮춘 탓에 유



럽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에 따르면 유럽 내 중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2020년 2.9%에서 2023년 21.7%로 급증했다. EU가 2035년부터 신규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100%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서 BYD·상하이자동차 등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가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전망이다.

마리오 Дра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EU 의회로 작성한 ‘경쟁력 보고서’에서 유럽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전기차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가장 저렴한 유럽산 전기차는 저가 내연기관차보다 92% 비쌌지만, 중국산은 가장 저렴한 전기차 모델이 내연기관차보다 8% 더 저렴했다.

반면에 중국 내에서 유럽 자동차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984년 이후 40년 가까이 중국 시장을 장악해 왔던 폭스바겐이 직격탄을 맞았다. BYD의 추격에 중국에서 쫓기는 것은 물론 안방인 유럽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물량 공세에 밀렸다. 결국 폭스바겐은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세 곳을 폐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아우디 등도 향후 수년간 유럽 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거나 줄어드는 추세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 부집행위원은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한 직후 “경쟁은 환영하지만, 공정성과 공평한 운동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조치는 세계적으로 최근 강화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위에

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내년부턴 미국인과 미국 법인이 중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며 마중간 손줄도 끊었다.

이에 중국도 보복을 준비 중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EU 조치에 대해선 수입 대항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각국이 시행한 무역 왜곡 조치 건수는 2019년 1000건에서 현재 300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자원 배분의 효율을 중시하던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유무역주의의 쇠퇴가 세계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관세 전쟁이 세계적 물가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성민**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무보험자를 위한 **케어 크레딧**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료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우메켄 연말

더블 혜택 대잔치

▶ 12월 31일까지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 할인 + 무료 선물

\$98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씨(C)밸런스
\$39

OR



FREE GIFT

아오지루
녹즙
\$39

\$165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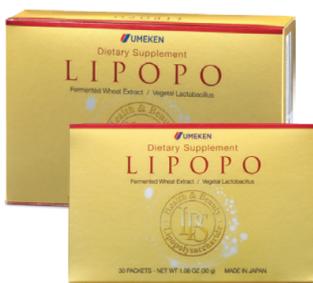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에센스(\$115)

~~\$439~~ ▶ **\$395**

L칼슘(\$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FREE GIFT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410)750-9656 • 모드니에(410)615-6167 • 힐링 마을(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301)926-6307

윤 대통령, APEC 뒤 김여사 입장 밝힐 듯... “소통방식 고민”

(11월 10~16일, 페루 리마)

내달 말 ‘국민과의 대화’ 방식 무계 노태우~문재인 과거 대화모델 분석 용산 “국면전환용 인사는 안 할 것” 전문가 “여권 내분 해결책도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1월 10~16일, 페루 리마)와 미국 대선(11월 5일)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마무리된 다음 달 말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주요 외교적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하며 세간에서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김 여사와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었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이 지난 다음 달 말을 소통 시기로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긴박한 국제 정세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했다. 이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후와 맞물린 때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안이 산적해 물리적으로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인사는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맞

물린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인사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쇄신의 시기를 실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한국갤럽(22~24일 성인 1001명 조사)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도 역대 최고치인 70%에 달했다.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자, 한 대표 등 친한계 인사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중진들은 29일 조찬 모임을 갖고 “대통령실이 결자해지에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달 말 소통 방식으로는 윤 대통령과 시민이 타운홀 형태로 대면하는 ‘국민과의 대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90년 6월 국민과의 대화를 처음 시작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화상으로 참여한 시민의 질문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까지 역대 정부의 모든 ‘국민과의 대화’ 사례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총 세 차례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2009년 1월 전문가 패널과 함께한 원탁대화에서 MB는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용산 참사의 책임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 진솔한 대화에 최선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약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며 역풍을 맞았다. 최근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문제만큼이나 여권 핵심부의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에서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티모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체코 당국, 원전 건설 계약 일시 보류=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 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첫 단계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인한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허진·장윤서 기자

한동훈 “당정 상생해야”... 김여사 관련엔 “특별감찰관 관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11월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당이 그것조차 머뭇거리면 국민은 ‘민심을 알기 아는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긴박한 현안이 맞물린 11월을 ‘운명의 달’로 본다.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다.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각각 15·25일)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탄핵 정국 조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11월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대외 정세도 요동친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 여사 문제 해결의 마지막 선을 11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여사 문제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상생’을 언급하는 등 온도 차이를 보였다. 한 대표는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저는 윤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길 누구보다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저자세 대북·대중 외교 탈피 및 탈원전 정상화, 연금·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기초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료·교육·노동 4대 개혁 과제 추진을 정부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성과들이 몇몇 상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

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김 여사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당정 갈등을 해소해야 민생 성과를 내고, 정치적 반경도 넓힐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 대표는 5000자 분량의 기자회견문에서 쇄신과 변화, 민생 등을 주로 언급하고, 김 여사 문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했다. 여당 관계자는 “회견문에서는 비전 제시와 당정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며 “다만 그 출발점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단호하게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범의 혐의 방탄을 위해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사법부를 압박하고, 내달 2일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것을 지적인 발언”이라며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이 대표를 압박하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없는 변화와 쇄신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내년 4월 전망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원내·외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의 위기 극복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답했다. 여당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고칠 것이냐는 물음에는 “당심과 민심이 정할 문제고 너무 먼 이야기”라고 했다. 지금대로라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는 여당 대표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손국희 기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제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앞빌딩 3층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소름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스페셜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랜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랜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드립니다.

팬텀2 **펠리스2**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가 되다!

PHANTOM Medical Care

- PEMF 전자기장으로 근육통 완화!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견인!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손지압 패드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강화된 안전센서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쿼다이얼
- 3단계 온열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폭신한 에어백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쓱** 내 몸에 **쓱**

Healthcare Robots **FALCON**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즉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홈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홈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명품 매트입니다.

원적외선 명품매트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홈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단 지정 대리점

월단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거기를 채우고 따듯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화 방지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워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시스템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윤 대통령 결단과 쇄신만이 난국 푸는 열쇠

영원불변한 건 세상에 없다. 나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운명을 비껴가지 못한다. 성자필쇠(盛者必衰)다. 한때의 제국들도 예외 없이 굴기와 쇠퇴를 겪었다. 스페인·영국·러시아 등 9개 국가의 흥망을 연구한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저자 저우둥라이(朱東來) 교수(난징 정치학원)는 ‘장수하는 강대국’의 비결이 내부 통합과 단결에 있다고 단언한다. “통합이 밑바탕 돼야 종합 국력의 역량을 집중해 과학기술의 진보와 제도 혁신을 실현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차대전 패망 후 독일이 강국이 된 건 ‘통일 독일’이 됐기 때문이고, 미국도 내전을 매듭짓고 분열의 위험을 타파하고 나서 비로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춘내전 상태에 접어들어 갈등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충고 같다.

세계는 한국을 전진과 굽주림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K컬처의 나라로 기억한다. 그 대한민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과의 러시아전 파병,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 대만 해협의 위기 고조, 불확실성이 높아진 일본 정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시다발로 한반도를 덮고 있다. 내부도 어수선하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악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간판 기업 ‘삼성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 리더십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 부인 문제로 추락하는 정권의 지지율과 대통령실-여당의 갈등, 내전 수준의 진영 충돌이 상황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윤여준 전 의원은 “외생변수는 항상 있었던 것이지만, 대비가 잘 안 이뤄진 상태에서 내외적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고 있어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중견 정치인은 “과거 같으면 물가나 가계부채 같은 문제 하나만 터져도 당정이다. 긴급 대책이다 해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3중, 4중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용산도, 여의도도 고요하기만 하다. 다들 체념해선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탄식했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동시다발적 전방위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 헤어날 수 있을까.

부인 위해 나라 버리는 형국 대선 안 돼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였다. 집권 후 최저치다. 진앙은 김건희 여사. 부정 평가의 1위가 김 여사(15%), 2위가 민생 경제(14%)였다. 정

치 브로커 명태균과 주고받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같은 수준 이하의 카톡 문구가 공개되고, ‘특하면 화내고 90% 이상 자기 말만 한다’는 윤 대통령의 내밀한 일상이 한때 참모였다는 사람의 발언으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지지층마저 떠나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필요하면 특검을 받든지, 검찰에 가든지 김 여사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선 국정 운영이 어렵다. 부인을 위해 나라를 버리는 형국이 대선 안 된다. 설사 감옥에 보내더라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백용호 전 정책실장도 “윤 대통령이 늘 시장을 중시하라고 했는데, 시장이 민심이고 민심이 시장이다. 지금 민심은 김 여사가 투명하게 조사를 받고 문제 있으면 응당 책임 지라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열쇠란 얘기다. 백 전 실장은 또 “리더가 가심과 조롱거리가 되면 정부의 영(승)이 안 선다. 마키아벨리가 군주가 조롱의 대상이 대선 안 된다. 차라리 무서운 존재가 되라고 하지 않았다. 시대가 다르지만 김 여사 문제가 대통령의 결정적인 하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윤여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와 함께 공적 역할을 안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한 번 속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참아줄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운영에 참여했던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금 대통령이 안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도, 김건희의 남편도 아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직에 충실하게 하는 게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과도, 특별감찰관도 지금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본다. 더 실기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물가 집값 상승은 정책의 실패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을 지낸 백용호 전 실장은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도 위험 요소로 봤

다. 자칫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쓰나미로 돌변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 같은 물가·집값 상승은 거시정책의 실패다. 서민들이 이런 집값·물가 상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먼저 세수 추계부터 제대로 해라. 세수 추계의 문제, 국가 채무의 증가가 결과적으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진다. MB 때 재정 운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강북 자사고 지원해 학군 수요를 분산하는 등의 노력으로 아파트값을 떨어뜨렸다 통화 증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물가는 잡힌다. 리더의 지혜와 용기란 떨어붙이고, 야당과 싸우고,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는 게 용기가 아니고, 정교하고 세심하게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2000명 증원 정책을 성공시키는 게 용기다. 인간이 빈곤해지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어떤 체제인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에 대

통령 이하 관료들, 가진 자들이 각성해야 한다. 정책 기초를 서민경제에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민 이익을 대표했던 로마 시대 호민관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는 풀수 없다.”

탄핵의 일상화, 공멸 자초할 뿐
취재 과정에서 만나 정치 원로들은 한결같이 탄핵이라는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탄핵이 또 다른 탄핵을 부르는, 탄핵의 일상화는 공멸을 자초할 뿐이란 이유에서다. 황금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이관사관식 방식은 정권의 실패를 넘어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다. 윤여준 전 의원은 ‘탄핵’을 만능키인 양 외치는 야당을 비판했다. “저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잘할 것이라는 신뢰를 줘야지 싸움이나 해서는 희망이 없다”며 “김정은·시진핑이 볼 때 (현 정권이) 국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백용호 전 실장은 “IMF 위기 때

리더가 조롱받으면 국정운영 못해 “김 여사 수사, 공적 활동 중단해야” 안팎의 쓰나미 리스크 돌파하려면 실종된 정치 회복 실기하지 말아야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연합뉴스]

결혼반지, 돌반지 내놓았던 금 모으기는 대한민국 역사를 상징적으로 바꾼 사건이었다”며 “그런 국민이 있다는 걸 믿고 민심에 부응한다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어떤 해법도 소용없지 않겠나”며 정치 회복을 주문했다.

다음 달 10일이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되는 임기 반환점이다. 이를 계기로 대대적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권 내에서도 모이고 있다. 정치가 실종된 이 시점이 오히려 정치를 되살려 작동케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 주장도 그중 하나다. 김성재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결단해 임기를 단축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야 합의의 개헌을 제안한다면 수습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비정치적 지도자, 명칭하라는 뜻”
성자필쇠라고는 하나 수십 년 만에 무너지는 나라도 있고 수백 년 변역을 구가한 국가도 있다. 희비를 가르는 게 리더십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치적 타협’과는 선을 그었다. 형사 피의자라는 이유로 2년여 야당 대표를 냉대했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우군이라도 자리를 빼앗거나 당 밖으로 내쳤다. 야당의 노골적인 대통령 망신주기에 반발해 국회 개원식(9월 2일)에 불참한 데 이어 11월 초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도 건너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의 논란엔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똥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마이 웨이’를 부르고 있다. 수사 검사로는 훌륭한 덕목일지 모르나 대통령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언제든지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국익의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책무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해야 할 일이 뭐냐를 찾아야 한다”(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는 고연도 같은 맥락이다.

헨리 키신저는 저서 『리더십』에서 “리더는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첫째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축이고, 둘째는 불변의 가치와 리더를 따르는 사람의 열망을 잇는 축”이라고 강조했다. 전후 현대 독일의 기초를 놓은 콘라트 아데나우어를 인용해 이런 말도 했다. “정치 지도자가 비정치적이라는 것이야말로 명칭하라는 뜻이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상담 내용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신제품

-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703-256-7671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우리말 바꾸기

뵤요? 뵤요?

문자메시지에서 눈에 자주 띄는 말이 ‘뵤요’다. “내일 뵤요” “이따 뵤요” “다음에 뵤요”와 같은 표현이다. 맞는 표기일까?

‘뵤다’의 어간은 ‘뵤’이다. 여기에 ‘고’ ‘니’ ‘면’ 등 연결어미가 붙을 때는 그대로 결합하면 된다. 즉 ‘뵤고, 뵤니, 뵤면’ 등이 된다. 문제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요’가 붙을 때다.

‘요’는 어간과 바로 결합하지 못한다. 어미인 ‘어’를 추가해야 한다. ‘떡다’의 ‘떡’에 ‘요’를 붙일 때 ‘떡요’가 되지 못하고 ‘떡어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즉 ‘뵤’에 ‘요’가 붙을 때는 그대로 ‘뵤요’가 되는 게 아니라 ‘어’가 추가돼 ‘뵤어요’가 된다. ‘뵤어’가 줄면 ‘뵤’이 되므로 ‘뵤어요’는 줄어 ‘뵤요’가 된다. 실제 말할 때는 ‘뵤어요’보다 준말인 ‘뵤요’가 많이 쓰인다. 헛갈리기 쉬우므로 ‘뵤요’의 철자를 외워 두는 것이 좋다.

‘뵤요’ ‘뵤요’와 더불어 ‘뵤다’ ‘뵤다’도 혼란스럽다. ‘뵤다’의 과거형은 ‘뵤+았+다’ 형태로 ‘뵤었다’가 된다. 이 자체로는 문제를 느낄 것이 없으나 이것이 줄어드는 경우다. ‘뵤었다’가 줄면 ‘뵤다’가 아니라 ‘뵤’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이래 (뵤도/뵤도) 왕년에 선수였다”에서는 어느 것이 맞을까? ‘뵤+어+도’의 준말이므로 ‘뵤도’가 맞는 말이다. ‘뵤서’ ‘뵤습니다’도 마찬가지로 ‘뵤서’ ‘뵤습니다’가 맞는 표기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규정 큰 코 다친다



김형재
사회부 부장

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연방과 각 주의 노동법 담당 정부기관이 당장 단속에 나설 사안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해 퇴직을 일반화하는 제도 자체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원은 고용주 측의 연령차별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으며 거액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부과한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지상사가 한국 본사에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보고해도, 본사에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심지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지시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소위 ‘로마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큰 코 다치는 셈이다.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며 부러움 반, 두려움 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용주 측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임신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의 연령차별 실태를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행태에 놀랐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장에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은퇴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 낫다.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등 언어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은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별도로 1967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EDA)’ 준수를 강조했다. 고용주 등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 LA(WTCLA)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LAE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국 지상사는 총 432개사, 고용직원은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연령차별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 모두 연령차별 금지법을 허투루 볼 때가 아니다.

마켓 나우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소날 데사이
프랭클린템플턴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

가서 연말까지 추가 0.5%포인트 인하를 예상해 가격에 선반영할 위험이다. 연준은 올해 남은 두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중 한 번은 금리를 동결하고 남은 한 번은 0.25%포인트만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 통화 완화의 필요성과 여지 모두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연준의 정책입안자들은 중립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는 점을 점차 인정해왔다. 이제 연준의 중립금리 중간 전망치는 2.9%다.

하지만 연준이 정책금리가 결국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시사하자 금융시장은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통화 완화를 기대하며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서 통화 긴축 정책의 효과가 상당수 상쇄됐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금융 여건은 2018년 초와 2019년 말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1.5~1.75%에 불과했을 때만큼이나 완화적이다.

연준이 향후 두 차례의 회의 중 한 번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로워 보이고 연준도 목표 달성에 더 큰 자신감을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임금 상승세는 강력하며 최근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추세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안착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금융시장은 훨씬 더 큰 폭의 통화정책 완화를 계속 기대하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예상이 맞다면, 우리는 좀 더 오랫동안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시장의 변동성을 목격할 것이다.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는 최근 미국 고용보고서의 명백한 결론이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특히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9월 한 달 동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25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완고한 회복력을 보인다(stubbornly resilient)’는 점이 반복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번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이 ‘짧고 얇을(short and shallow)’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한다. 통화정책 완화 기간이 단기간에 그칠 것이며 완화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관점이다. 점차 더 많은 시장 관찰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했어도 충분했다. 하지만 연준은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물론 이번 결정 때문에 큰일이 나지는 않았다. 문제는, 시장이 너무 앞서 나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3) 인간 노무현

은행원 꿈꿨던 막내... 형 무릎 베고 “나 대통령 됐어”

(노건평)

“형, 나 대통령 됐어.”

2002년 12월 20일 새벽 서울 명륜동 노무현 당선인의 자택. 몇 잔의 축하주로 노무현은 제법 얼큰한 상태였다. 대선기획단장 문희상이 당선인을 따라 안방에 들어가니 마침 형님 노건평이 와 있었다.

“당선인이 무턱대고 형의 무릎을 베고 방바닥에 드러눕지 않겠어요. 다짜고짜 ‘형, 나 대통령 됐어’라는 거예요. 당시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나뿐이었습니다. 형, 건평씨는 ‘이러지 말라’며 내 눈치를 봤지만, 동생 노무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마치 어리광 부리는 어린 애처럼. 평생을 뒤흔다지 하느라 고생한 형에 대한 고마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간 노무현이었습니다.” 그 옛날 권투선수 홍수환이 남아프리카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따고 나서 국제전화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외쳤던 장면을 연상케 했다고 문희상은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노무현에게 가족은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는 1946년 경남 봉하마을에서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몸씨 가난했다. 이웃집에서 쌀을 빌어먹을 지경이었다. 학비를 조달할 돈이 없어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폰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노무현은 혼자서 물래 5급 공무원(지금의 9급)시험을 준비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큰형(노영현)이 펄펄 뛰는 바람에 부산상고로 진학하게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노무현의 집안 사정은 그중에서도 극빈자였다.

봉하마을을 떠나 부산으로 유학 왔다. 자취, 가정교사, 빈 공장 숙직실을 전전하며 어렵사리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사춘기의 노무현도 공부에 열중한 착실한 학생은 아니었다. 졸업 후 그의 장래 희망은 평범한 은행원이었다. 농협에 지원했으나 낙방하고 만다. 하는 수 없이 삼해공업이라는 어망회사에 들어갔지만, 하숙비도 안 되는 수습사원 봉급에 두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다.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1966년 봄이었다. 여의치 않았다. 어영부영하다가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야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잇따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두 형이 비록 막대한 세무공무원이었으나 집안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 이 무렵에 어렸을 때 소꿉친구 권양숙을 만나 결혼한다. 신부 입장에서 고시 준비로 세월을 낚아 온 ‘백수건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 김해 선영을 방문한 노무현 후보와 형 노건평(앞줄 가운데)씨. 오른쪽은 문재인 부산선대본부장. [사진 노무현사료관]

상고 졸업 후 농협 지원했지만 낙방, 군 제대 후 3수 만에 사법고시 합격, 전두환 정권 ‘부림사건’이 인생 바뀐 불공정에 대한 저항의식 표출 계기



1988년 11월 국회 5공비리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바리를 따져 묻고 있는 노무현 의원. [중앙포토]

5공 청문회 스타로 세상의 첫 주목 “3당 합당은 야합” 소신·원칙 지켜 YS의 요청 뿌리치고 DJ 진영 합류 지역주의 도전, 낙선 가시밭길 선택

장났다.

정치 입문의 기회는 어느 날 저절로 찾아왔다. 노무현의 인생에서 가장 쉽게 이뤄진 일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미 수많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얻어왔던 터이기도 하다.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현실 정치에 뛰어든 생각은 하지 못했다.

1988년 대선에 패배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13대 총선을 맞아 앞을 다투어 젊은 피 수혈에 나설 때였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게 된다. 노무현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을 돕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출마해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던 허삼수를 누르고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때만 해도 정치인 노무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YS 후광으로 당선된 신출내기 초선의원에 불과했다.

그랬던 노무현이 그해 가을, 하룻밤 사이에 ‘청문회 스타’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청문회 스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6·29 선언으로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고, 노태우 정권의 여소야대 의회에서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열렸다. 주로 전두환 정권을 심판하는 과정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연일 TV로 생중계됐고, 시청률 또한 매우 높았다.

어느날 웬 더벅머리 국회의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청문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노무현이었다. 누구든지 노무현의 질문 공세에 걸리기만 하면 곤욕을 면치 못했다. 때로는 고함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명패를 집어던져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으나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은 단연 청문회가 탄생시킨 국민 스타였다.

그런 노무현에게 첫 시련이 닥쳐왔다. 자신에게 국회의원을 시켜준 김영삼과 척을 지고 등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990년 1월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은 합당을 선언해 거대여당 민자당이 출범했다. 노무현은 아무리 집권을 위한 합당이라 해도 그것은 야합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 있습니다.”

김영삼의 합류 요청을 뿌리치고 7명의 의원과 DJ에게 합류했다. 3당 합당이 옳지 않다는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선택한 것이다. 그 대가는 비쌌다. 92년 총선에서 YS의 지원을 받은 허삼수에게 속절없이 패배했다. 부산에서 DJ 당으로 출마했으니 자초한 낙선이었던 셈이다.

노무현 정치 경력의 주류는 당선이라 아니라 낙선이었다. 대통령 당선 이전의 선거 전적은 2승4패. 정치인으로서 낙제점이다. 그나마 2승 중에 한번은 YS 후광 덕분에 당선된 첫 선거였고, 다른 한 번은 서울 종로구의 보궐선거였다. 제대로 된 선거에서는 전패하거나 다름없었다. 낙선 경력의 백미는 16대 총선이었다. 보궐선거에서의 당선으로 다음 선거 승리는 때론 당연이었던 종로를 버리고 굳이 부산으로 가서 떨어졌으니 말이다. 오로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자신의 정치 소신을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이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하기 시작했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 부지불식간에 인터넷상에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어졌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장규·손병수·김창우·박유미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가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30~40년 이상의 최상급 산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시 설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施政)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 뉴강스를 감안하면 총리 대독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국민과 여야 의원들에게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처리의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다. 과거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연설하고 이듬해부터 총리 대독으로 넘어가곤 했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경우다. 심지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인데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맡기는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여론을 수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시정연설을 직접 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관례가 11년째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맡긴다면 한국의 정치문화를 다시 후퇴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677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설명하는 건 국민에 대한 기본 책무이자 예의다.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꺼린다면 아마 야당의 거친 언행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대통령이 지나가자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연설을 들었으며,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자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한 의원도 있었다. 올해는 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어서 작년보다 훨씬 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는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야당 의원들이 면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감내해야 할 숙명으로 생각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면 될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

도 다 국회에서 이런저런 수모를 겪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번 시정연설까지 피해간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적잖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야당에도 당부한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어도 공식 행사에서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옳다. 한국의 헌정 체제가 유지되려면 대통령 개인을 넘어선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고스란히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내년 예산·정책 설명은 국민에 대한 기본 책무 야당도 선 넘는 행동 때는 여론 역풍 맞을 것

“역사의 종언” 시대 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대비해야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기념비적인 저작 『역사의 종언』에서 1989년 냉전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선언하며,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의 경쟁은 역사적 경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분업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산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국가 간 상호의존성과 연계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거세어지면서 국제질서를 지배했던 이들 논리가 위협받고 있다. 테드 픽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9일 “역사의 종언” 시대도 끝났다”며 “지정학적 문제가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몇십 년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머니와 제로금리, 제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보호무역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어제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일반관세(10%)에 추가 관세(7.8~35.3%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이 떨어진다. 정부 보조금 등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산 전기를 막기 위한 조

치다. 앞서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의 기술패권 강화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로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무역이 흔들리는 건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국가적 위협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생긴 반도체 분업 체제 균열의 충격파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1~9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12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관세 조치가 가져올 손익도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폐지와 대중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다.

격화하는 보호무역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위기를 돌파하려면 새롭게 짜일 무역 질서에 대한 방어와 함께 이를 시장 재편의 기회로 삼을 중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역 장벽도 뚫어낼 제조 기술의 역량을 높여 첨단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정부 지원, 국회 입법이 함께 가야 한다.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쓰나미 앞에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도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경제 부진, 변명만 할 건가

이상렬의 시사각각 時視各角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8월 29일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을 기억하는 국민에게 3분기 성장률(0.1%)은 쇼크다. 한국은행 예상치(0.5%)의 5분의 1이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는 정부 성장 전망치인 2.6%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은이 예상한 2.4% 성장도 어려워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전직 경제 장관의 코멘트. “성장을 하향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책을 내놓아야지.”

경제 전망이야 틀릴 수 있다. 문제는 상황 인식이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 판단을 내린 것이 11개월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는 6개월째 “안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월간 경제동향)고 진단해 왔다. 그것이 대통령의 자신감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 사이 성장률은 2분기 -0.2%, 3분기 0.1%를 기록했다. 결국 누구 말이 맞나. 이런 상황은 정부가 낙관적 사고에 젖어 있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진단이 틀리면 올바른 대책이 나오리 없다.

정부가 믿었던 수출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3분기 수출 부진(0.4% 감소)도 그렇지만, 10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보다 1% 느는 데 그쳤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수출의 황금어장이 아니고 반도체, 자동차도 힘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안 좋으니 세수가 좋을 리 없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29조6000억원. 그런데도 여권은 금투세 폐지에 사활을 걸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했다. 세금 감면이야 달콤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은 국민의 불안감을 높인다.

더 큰 일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추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2%.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미국(2.1%)에 추월당했다. 흑자는 세계 최고인 저출생·고령화 탓이라고 한다. 단편적 분석이다. 인구가 줄면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방

도를 찾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우선 인재 유출. 지난해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간 석·박사급 핵심 인재가 1400명 이상으로 추정됐다(한국 경제신문 10월 28일자). 게다가 올해 한국을 떠나는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가 1200명에 달할 거라는 영국 컨설팅업체 분석도 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7000억원 이상의 국부가 나가는 셈이다. 인재와 부자가 빠져나가는 데 생산성을 어떻게 올린다.

정부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도 문제다. 예를 들어 올해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고 이익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이 이자 수익이다. 금융당국의 관치 아래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만 올라갔기 때문이다. 예금자와 대출자의 희생으로 은행만 배를 불리는 셈이다.

성장률 쇼크, 잠재성장률 추락 저출생·고령화 탓 하지 말고 인재 붙잡고 시장 역동성 살려야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게 정부 의도지만, 이렇게 경제가 상식과 다르게 움직이면 국민의 ‘경제 의욕’ 자체가 차갑게 식는다.

최근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잘나가는지를 분석했다. 광대한 시장, 낮은 수준의 규제, 세계 최고의 대학, 법치주의(rule of law) 등 여러 요소가 소개됐다. 비즈니스 역동성도 있다. 미국은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기업 비율이 20%로 유럽(15%)보다 훨씬 높다. 미국에선 3개월 동안 약 5%의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데 비해 이탈리아에선 1년이 걸려야 이 정도 이직률이 나타난다. 사업을 접거나 창업자금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고, 해고도 구직도 수월하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얘기다.

성장 부진도, 잠재성장률 하락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선 안 될 일을 해서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 더욱 개혁이 절실해졌다.

수석논설위원

중양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제이씨이씨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ENGLISH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日経新聞
구독료 |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Hwang Realty featuring a woman and text: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Includes Eruda Design & Build Inc. logo.

Advertisement for Wishing Star News: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양일보. Includes contact info: Wishing Star News,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OCT. 31ST - NOV. 7TH, 2024



Black Bean & 16-Grain Soymilk
베지밀
검은콩과
16곡 두유



\$13.99 6.4 FL OZ X **24 EA** /SPECIAL GIFT BOX

행주 & 수세미 무료증정



FREE

Free Mesh Sponges & Kitchen Cloths

Vacuum Airtight Food Container
황토 누름이 김치통

BPA FREE



~~Reg. \$16.49~~
\$9.99 EA 6.5 L/ 320 X 230 X 125 MM



~~Reg. \$27.99~~
\$15.99 EA 16 L/ 335 X 244 X 251 MM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LA 관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October 31,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방은 따로 거실은 같이, 공유주택 어때요

최근 Z세대와 시니어들 사이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고립은 피하면서 편리한 생활 환경을 위해 공유주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Z세대 역시 높은 집값과 고금리로 내집 장만이 힘들어지자 공유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비싼 집값과 고물가, 사회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 주택 종류 및 현황,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다.

주거비 부담 덜고 사회적 교류 원하는 시니어, MZ세대 모두에 갈수록 인기

▶공유주택이란
공유주택은 다수의 거주자들이 주택 또는 건물을 함께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그러나 공유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닌 침실과 화장실 등 입주자별 독립 공간을 따로 갖되 거실이나 주방 등 공용 공간만 함께 사용한다. 이런 공유주택은 주거비 절감은 물론 다양한 세대와 사회적 교류까지 할 수 있어 시니어와 젊은 세대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휴세어링 세입자들은 주로 싼값에 집을 임대하려는 Z세대들이 주를 이룬다. 코리빙은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각각 개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내 피트니스센터, 라운지, 업무 공간(work space) 등을 함께 공유한다.

▶종류

공유주택은 크게 코하우징(Co-housing), 홈세어링(Home Sharing), 코리빙(Co-liv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코하우징은 입주자 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지만 주방, 거실, 정원 등 공용 공간은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형태다. 이 주거 방식은 공동체 생활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며 주거비를 절감하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홈세어링은 홈오너가 자신의 집 일부를 임대해 임차인과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다. 이는 은퇴 후 월세 소득을 얻고자 하는 시니어 홈오너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황

공유주택 인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고물가와 비싼 집값으로 악명 높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주거비 절감과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중요시 여기는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주택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코리빙. 팬데믹 동안 위리브(WeLive), 커먼(Common), 올리(Ollie) 등과 같은 공유주택 서비스 플랫폼은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거 공간을 임대해 인기를 끌었다. 현재 국내는 물론 글로벌 코리빙 시



저렴한 주거비로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공유 주택이 시니어와 Z세대에게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unsplash.com 제공)

장에서 선두를 차지한 기업은 해비트(Habyt)와 홈룸(HomeRoom) 등이다. 2023년 커먼과 합병해 글로벌 코리빙 시장을 선점한 해비트는 전 세계 40여 곳 도시에서 3만개 이상의 코리빙 유닛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홈룸은 기존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택 소유주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코리빙 유닛을 관리하는 서비스 기업인데 현재 캔자스시티, 달라스, 오스틴, 피츠버그 등 대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양 세대 모두 주거비 절감과 더불어 세대 간 교류까지 덩어리 얻을 수 있어 미래의 대안적 주거 형태로 각광 받고 있다. 전국시니어하우징투자센터(NIC)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시니어 커뮤니티와 코하우징(Co-housing) 커뮤니티 수는 약 31만5000 유닛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Z세대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도 주택 소유라는 기존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 공유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점점 더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리빙뿐만 아니라 홈세어링 역시 시니어와 젊은 층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공유주택 형태다. 실버네스트(Silvernest) 같은 플랫폼에서는 시니어 홈오너와 세입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니어 홈오너에게는 고정 소득을, 젊은 세대에게는 저렴한 주거비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

▶입주 방법
공유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코리빙닷컴(Coliving.com) 같은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주현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NEW DC 리커 + 건물 다시 리커와 코너 건물 포함 주인이 리커 운영하실분 2백5십만불	DC 리커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인기 많은 K-HOT DOG집 포토매일,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25만불	NEW 페어옥스몰 버블터, 핫도그 양념치킨 해보실분 2000SF, 렌트8000불, 7만불	NEW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00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DC 유명 델리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 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페어팩스 오피스 두개 매매 \$520,000 페어팩스 코트하우스와 가까운 위치	단독건물 애난데일 최고 상권, K-Market 건너편 임대, 드라이브 트루잇, 2500 SF, 식당, 커피샵,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Beer and Wine 주매상 17,000불, 버지니아 복층 매물 3층 VA 알링턴, 25만불	
		Beer and Wine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MD 몽고메리카운티, 조건부 임대계약, 50만불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다치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www.dwellwashingt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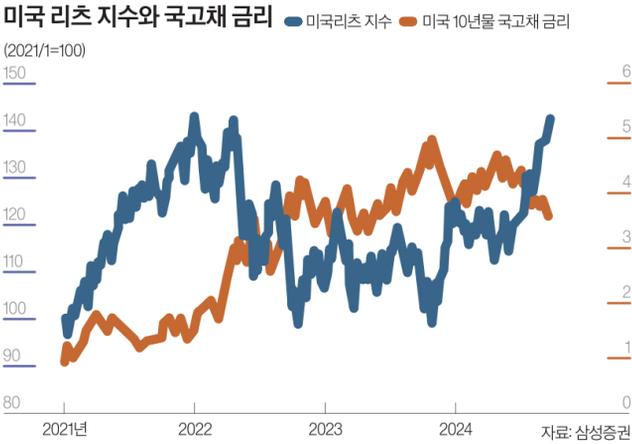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건물주 돼볼까... “금리 내릴 땐 주식보다 고수익”

부자가 아니어도 서울 도심 빌딩이나 미국의 오피스 건물주가 돼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회사다.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일반 주식 종목처럼 사고팔 수 있다. 골치 아픈 건물 관리를 할 필요 없이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배당률도 높은 편이라 증시가 불안할 때엔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힌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리츠의 방어력은 종이 방패 수준이었다. 금리가 치솟는 바람에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는 리츠 주가가 급락해왔다.



그동안 리츠 투자자가 애타게 기다렸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난달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금리 인하수혜주로 미국 리츠를 꼽는다.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157개, 시가총액 1조2230억 달러(약 1650조원)에 달한다. 아직 초창기인 국내 상장 리츠(24개, 8조5000억원)보다 규모가 월등하다. 다양성 측면에서도 국내는 주택·오피스에 70%가 몰려 있지만, 미국은 물류,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등 14개 섹터에 걸쳐 골고루 분포한다.



종류가 많을 때는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중앙일보 머니랩은 수많은 미국 상장 리츠 가운데 어떤 섹터가 이번 금리 인하기에 가장 주목받는지, 핵심 종목은 뭔지를 분석했다. 미국 건물주가 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 싶다면 꼭 체크하기 바란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은 53.8%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 리츠는 4.6% 하락했다. 주식시장이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하는 동안 리츠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다. 리츠는 부동산을 인수하고 개발하기 위해 대출 등 부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2022년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치솟아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여기에 미국 상업부동산(CRE) 시장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공포가 겹쳤다.

미국 리츠의 P/FFO는 16.2배로 역사적 평균에 비해 10% 이상 낮은 상태다. 너무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이 부담스럽다면 아직도 싼 리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종목 10위 목록을 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리얼티인컴'이란 이름이 보인다. 이 종목은 매달 배당금을 주는 리츠다. 이달에는 주당 0.26달러를 지급했는데, 연간으로 치면 3.12달러를 주는 셈이다. 현재 주가(약 62달러)를 고려하면 5.03%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고금리 시기에는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수익률조차 5%를 넘었다. 4~6%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하는 리츠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운영난을 겪은 일부 리츠

는 배당금을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 리츠의 배당 매력도가 다시 높아진다. 전미리츠협회(NAREIT)가 1974년 이후 미국의 아홉 차례 금리 인하 시기(3개 분기 이상 인하)를 분석해 보니, 리츠 성과가 주식과 사모부동산을 압도했다. 통화 긴축정책 종료 이후 첫 분기 만에 리츠의 수익률이 주식을 앞서는 시작했고, 4개 분기(1년)가 지난 뒤에는 사모부동산 10.5%, 주식(S&P500) 17.3%, 리츠 20.9%로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다.

물론 금리 인하 이전부터 주요 리츠 주가는 반등을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을 보면 부동산 섹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S&P500 전체 업종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아직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우량한 대형 리츠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데이터센터 리츠는 ‘성장형 리츠’로 불린다. 다른 섹터가 부진했던 최근 2년간에도 데이터센터 리츠는 생성 AI(인공지능) 수혜주로 주목되면서 크게 성장했다. 데이터센터 리츠의 양대 산맥은 에퀴닉스(EQIX)와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DLR)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성 AI가 주도하는 강력한 수요와 함께, 전력량 제한으로 무제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리츠는 계속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달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를 위한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킨다고 밝혔고, 이달에는 에퀴닉스가 캐나다연금(CPPI) 등과 합작해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개발에 나선다고 했다.

이처럼 큰손 기관 투자 자금이 데이터센터에 몰려드는 건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DLR, EQIX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높이며 “올해 DLR은 20% 가까이 올랐고, EQIX도 10% 올랐지만 엔비디아나 이튼(Eaton) 같은 AI 관련 반도체, 에너지 기업에 비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고 했다.

데이터센터와 함께 가장 성장성이 높은 섹터로 주목되는 것이 헬스케어 리츠다. 의료 시설이나 노인 주거시설 등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리츠는 미국

고령인구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성장 이 기대된다. 베세호 iM증권 연구원은 “특히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라며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니어 하우스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당분간 임대 수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웰타워(WELL)다. 미국 최대의 노인 주거, 의료 시설 리츠인 웰타워는 미국에 1654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의 71%가 노인 주거시설, 20%가 의료시설에서 나온다.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 38% 올랐지만, 노인 주거시설 입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민주 키움증권 연구원은 “웰타워는 최근 배당금을 10% 인상했다”며 “장기 성장성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큰 장세를 방어해 줄 종목”이라고 했다.

마트나 식당 등 리테일 리츠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넷리스(Net lease) 리츠’가 어려움을 겪었다. 넷리스 리츠란 건물을 단일 임차인에게 통째로 빌려주면서 세금과 보험, 운영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만 받는 형태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리얼티인컴(O)이 바로 넷리스 리츠다. 리얼티인컴은 최근 108분기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 온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다.

남윤서 기자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u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This is an advertisement.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상담 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 B, G, K, L, 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ponsored by 스마트보험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독점 매물 \$49만불
옥스힐/매릴랜드
MGM 카지노에서 10분거리위치한 싱글홀,
방4개 화 3, 차고 1. 모두 수리된집

17년 부동산 경력의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선정
16년 연속 탑 에이전트의 풍부한 부동산 경험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촉을 늘 감지하는 비키리 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부동산 투자 실수가 없습니다.
셀러, 임대주택 렌트 - 모든 온라인매체에 광고 노출을 제일
많이하며, 빠른시일내에 매매가 성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바이어 대기 - 센터빌, 페어팩스에 위치한 깨끗한 콘도 매물 찾습니다.



독점 매물 \$68만불
우드브릿지 싱글홀
2005년 지어진 깨끗하고 잘관리된집
방4개 화 4.5 차고 2 렌트도 가능



독점 매물 \$57만불
알링톤 콘도
방2/화 2 모두 수리된집, Clarendon
메트로역에서 1 마일, 펜타곤과 인접집



디씨 콘도 렌트 , 스튜디오 \$2100 어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와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스털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 즉시입주 가능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악착같은 부동산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까다로워지는 콘도 용자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9월 기준금리 인하이후 모기지 이자율은 역으로 상승하고 있다. 잠시 상승하다가 말했지 하던 예측을 비롯기라도 하듯이 상승세가 예상되지 않는다.

어느덧 모기지 이자율은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가을 수준으로 되돌아온 듯하다.

금리인하의 기대감으로 한때 5% 중반대를 기록하기도 했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어느덧 다시 6% 중후반대로 뒷걸음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상승한 이자율에 오를만큼 오른 주택가격으로 인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만만한(?) 가격대의 주택을 찾다보니 최근 콘도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용자를 얻어서 콘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단순히 용자신청인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는 것 뿐 아니라 해당 콘도 단지에 대한 심사 또한 추가라고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뒀야한다.

그럼 왜 유독 콘도에만 이런 추가심사 절차가 있는 걸까? 바로 주택과 콘도의 차이점을 알면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운타운 및 일반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건물과 땅이 함께 소유주의 몫으로 등록이 된다. 내 집이 앉아 있는 바로 그 땅과 건물 모두가 나의 몫이 된다. 하지만 콘도는 해당 유닛 건물은 나의 몫이지만, 이 건물이 앉아 있는 나만의 소유하고 있는 땅이 별도로 있지 않다는 게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총 100유닛이 있는 콘도 단지에 있어서 해당 콘도 커뮤니티 안에서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는 콘도 유닛은 나만의 소유이지만, 내 유닛이 따로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콘도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는 전체 땅이 나를 위시한 다른 99 콘도 유닛 소유주 즉 총 100콘도유닛 전체 공동소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유로 되어있기에 땅의 소유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주택용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휴식이라도 있을지모를 담보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단순히 주택 소유주의 자격요건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유주들이 소유한 콘도 유닛들을 포함한 전체 콘도 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함께 심사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해당 콘도단지 전체에서 유닛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 유닛의 숫자가 테넌트가 거주하고 있는 렌트용 유닛 숫자보다 더 많은지를 확인하고, 또 콘도 피 연체비율을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콘도 단지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에 반영하기도 한다.

간혹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갖춘 바 이어라고해도 본인의 자격요건과는 상관없이 해당콘도의 리스크 때문에 용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콘도의 자격요건은 피할수없는 단계라는 점 유의하고 해당 콘도 단지가 주택용자를 받는데 적합한지 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FHA 용자나 VA 용자 같은 정부 용자로 콘도를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콘도가 FHA Approved Condo 인지 또는 VA Approved Condo 인지 알아보고 계약에 임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최근 국책모기지 은행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콘도심사규정이 더 까다로워져서 해당 콘도의 용자 승인 여부를 더 미리 알아보고 임해야 용자진행중에 일어날 돌발변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주택용자를 얻어서 콘도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자격요건을 맹신하고 선불리 진행하지 말고, 본인의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해당콘도의 자격요건 또한 꼼꼼히 따져본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쟁이 심한 주택시장에서 바이어를 보호해주는 여러 컨틴전시들이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스스로 아무리 용자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더라도 콘도 문제로 용자가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 703-868-7147 배준원

부동산 가이드

좋은 부동산의 의미

알짜배기 매물이란 좋은 부동산을 말한다. 좋은 부동산이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동산으로 고객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좋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구체화하지 못한 주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표현임은 틀림없다.

어떤 부동산이 좋냐 나쁘냐를 결정할 때는 여러 기준이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가 대표적이다. 건축 연도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선택할 경우 각 부동산의 수입과 지출이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서도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매물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려는 사람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모든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좋은 부동산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당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브로커는 요구하고 있는 고객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좋은 부동산을 찾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요구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다음과 같이 투자 목적과 찾고 있는 매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투자 목적을 알아야 한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수익성 상업용 부동산을 원하고 은퇴한 입장이라면 부동산 관리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제한한다.

둘째, 투자 가능한 금액을 밝히는 것이 부동산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투자금액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고객도 있는데 이는 부동산 크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부동산 투자 선호지역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된다.

넷째,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막연하게 좋은 매물을 찾아보기 전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고객이 자신의 현황을 브로커에게 사전에 인식시켜 줌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객의 투자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부동산의 기준은 고객에 따라 다르다. 위치도 맘에 들어야 하고 가격도 좋아야 하고 교통도 편리해야 하며 안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 또는 전망, 시세 등등 모든게 최고로 좋아야 한다는 게 고객의 요구사항이다.

그렇다면, 알짜배기 매물 즉 좋은 부동산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안에서 과연 무엇이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전략이 되는 걸까 하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지만, 그래도 빠르고 명쾌한 답을 얻기 위해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

케롤리-캐롤리부동산 대표

상업용 부동산 구매

한인사회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들의 경제력 역시 과거보다 많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므로 상업용 부동산 구매 시 임대수입, 보수 및 관리 비용, 그리고 세입자들의 잔여 리스 기간 등을 파악해서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환경 검사(environmental survey)나 사용권(easement)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첫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의해서 알아봐야 한다.

우선 은행에서 용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환경 검사가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무엇보다 땅의 오염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건물이 위치한 곳의 토질 등의 오염 여부는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에 세탁소나 자동차 정비소가 있거나 있었다면 토질의 오염 여부를 주의 깊게 보고 관심 있게 알아봐야 한다.

환경 검사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환경검사 업체들은 해당 부동산 주변으로 과거 가스나 기름 누출 기록 등이 있었는지를 관련 기관에서 열람해서 1차 보고서(Phase I Report)를 제공한다.

하지만 만약 오염이 의심된다면 2차 조사(Phase II)를 해야 한다. 2차 조사는 토질 검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다. 참고로 1차 검사비용은 2500~3000달러 수준이며 주로 용자를 얻는 바이어가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차 검사까지 해야 할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자칫 이 항목에 대해서 셀러와 바이어간의 비용 부담을 계약상으로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일 사려는 매물의 땅이 오염되어 있다면 토질 오염 제거 및 대체 비용으로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임대 수입과 관련된 서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휴대폰 안테나 설치를 위해 대형 전화 회사와 건물 옥상 사용에 대한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바이어는 계약에 명시된 조항대로 건물 옥상의 사용이나 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추가로 임대 수입이 생겨서 긍정적인 수도 있지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다른 업체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에 잘 부합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관망하던 바이어들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면 좋은 가격에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케네스 정-드림부동산대표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ty Maryland. Includes contact info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phone (410-696-2268), and fax (866-531-7541). Features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status (SOLD, UNDER CONTRACT, RENTED), price, and location (Hanover, Laurel, Edgewater, Odenton, Perry Hall, Catonsville, Elkridge, Ellicott City, Jessup, Germantown, Sliver Spring, Glen Burnie). Includes agent photos and contact info for Jinny Choi and Stacy Yang.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Seniors (Up to 65)
Kids (Under 15)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60-Minute Body Massage

- Relaxation Full Body
- Swedish with Free Essential Oil
- Therapeutic Deep Tissue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0AM - 3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Hair **Z**one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듀엣 신곡 '아파트'를 부른 블랙핑크 로제(오른쪽)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 [사진 더블랙레이블]

'아파트' 로제, 빌보드 최고층 보인다

'핫100' 8위, K팝 여가수 신기록
BTS·싸이 이어 5번째 톱10 진입
유튜브 뮤직비디오도 2억뷰 육박
로제 "꿈 이뤄져, 고마워요 브루노"

"세상에나. 블랙핑크(블랙핑크) 팬덤) 정말 고마워요. 꿈을 이뤘어요. 브루노 마스."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노래 '아파트(APT.)'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K팝 여성가수 최고 순위인 8위에 오르게 된 블랙핑크 로제는 소셜미디어(SNS)에 이렇게 소감을 남겼다.

29일 빌보드는 SNS를 통해 지난 18일 발매된 '아파트'가 11월 2일 자 핫100 차트에 8위로 데뷔한다고 발표했다. 빌리 아일리시(3위 '버즈오브 어페더'), 레이디 가가&브루노 마스(4위 '다이 워드 어 스마일'), 사브리나 카펜터(5위 '에스프레소', 9위 '테이스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종전 K팝 솔로 여성가수 최고 순위는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2021)와 블랙핑크 리사의 '록스타'(2024)로 70위였다. 그룹은 셀레나 고메즈와 협업한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2020)이 13위까지 올랐다. 로제는 또 방탄소년단·지민·정국(이상 1위), 싸이(2위)에 이어 핫100 톱10에 든 다섯 번째 K팝 가수가 됐다.

'아파트'는 전 세계 200여개 지역의 스트리밍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200 차트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서도 1위를 석권했다. 김도현 대중음악평론가는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레이블 단위에서 협업해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로제는 지난 9월 브루노 마스가 속한 미국 워너뮤직그룹 산하 애틀랜틱 레코드와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는 로제가 오는 12월 발표하는 솔로 정규 1집 '로지'의 선공개곡이다.

'아파트'는 앞서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도 4위에 올랐다. 영국 오피셜 차트 측은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사는 게 아니면 '아파트'를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내 음악방송 1위도 차지했는데, 브루노 마스는 '아파트'가 Mnet 엔카운터다운과 SBS 인기가요 1위에 오르자 SNS에 한국어로 소감을 올려 화제가 됐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출연한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고, 곧 2억회도 넘어설 전망이다.

로제가 솔라리 게임인 '아파트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노래는 반복적인 콩글리시(한국식 영어) 가사인 '아파트, 아파트' 부분이 중독성 있다. 토니 베이즐의 1980년대 히트곡 '미키'의 일부를 활용해 처음 들어도 친숙하다. 영국 음악평론지 NME는 "로제가 '킬러' 곡을 만들 줄 안다. 빈티지 팝 록 장르 위에 장난기 어린 에너지로 통통 튀는 멜로디를 더했다"며 평점 만점(별 5개)을 줬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밈(Meme, 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트와 멜로디가 환청처럼 맴돌아 '수능 금지곡'으로도 불린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아파트'가 K팝 콘텐츠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하는 분위기"라며 "지역의 사소한 문화일 수 있는 요소를 글로벌 팝에 접목한 로제의 대담함이 큰 과급력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평론가는 "빌보드 핫100 차트 상위권에 쟁쟁한 노래가 포진해 '아파트' 순위가 더 오르지 알 수 없지만, 하락해도 그 폭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지영 기자

프리먼 광광광... (1~3차전 연속 홈런) 다저스, 거침없는 3연승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은 첫 시즌에 우승을 눈앞에 뒀다.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에서 파죽의 3연승을 달리면서 통산 8번째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다저스는 29일(한국시간)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3차전에서 뉴욕 양키스를 4-2로 눌렀다. 1회 초 1사 1루에서 프레디 프리먼이 결승 우월 2점 홈런을 터뜨려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3회와 6회에 각각 1점을 추가하면서 양키스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다저스 선발투수 워커 볼러는 5이닝 동안 무실점(2피안타 5탈삼진)으로 호투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2차전에서도 투루를 하다 왼쪽 어깨를 다쳤던 오타니는 이날 1번 지명타자로 출전, 3타수 무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안방에서 열린 1차전(6-3 승)과 2차전(4-2 승)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던 다저스는 3차전에서도 양키스를 물리치면서 우승을 눈앞에 뒀다. 이제까지 월드시리즈를 포함한 역대 7전 4승제의 포스트시즌에서 1~3차전을 싸늘이한 경우는 40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단 한 번만 빼고 모두 초반 3연승을 거둔 팀이 승리했다.

유일한 예외는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였다. 당시 보스턴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양키스를 만나 3패 뒤 4승을 거뒀다. 보스턴은 이

WS 3차전도 양키스 4-2 제압
프리먼, WS 5경기 연속 홈런 기록
양키스 저지는 1안타 7삼진 '부진'
다저스, 오늘 4차전 이기면 V8

뜨려 최다 기록을 세웠다. 2020년 내셔널리그 MVP 출신인 프리먼은 현재 오른쪽 발목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도 월드시리즈 1차전에선 연장 10회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뜨렸고, 2차전엔 3회 썬기 솔로 홈런, 3차전엔 1회 결승 2점 홈런을 터뜨렸다. 역대 월드시리즈 1~3차전에서 모두 홈런을 기록한 건 1958년 헵크 바위와 2002년 배리 본즈의 뒤를 이어 프리먼이 세번째다.

가세를 몰아 월드시리즈까지 제패하면서 지긋지긋한 '밤비노의 저주'(1919년 베이브 루스를 양키스로 트레이드 한 뒤 우승하지 못하는 징크스)'를 풀었다.

3차전 승리의 주역은 다저스의 3번 타자 프리먼이었다. 프리먼은 1회 선두 타자 오타니가 볼넷을 얻어 만든 1사 1루의 찬스에서 양키스 선발투수 클라크 슈미트의 공을 받아쳐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이던 2021년 월드시리즈 5, 6차전에서 홈런을 때려냈던 프리먼은 올해 월드시리즈 1~3차전에서 연거푸 아치를 그려 월드시리즈 5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세웠다. 5경기 연속 홈런은 월드시리즈 최다 연속경기 홈런 타이 기록이다. 이전엔 조지 스프링어가 휴스턴 애스트로스 시절이던 2017년과 2019년 월드시리즈에서 5경기 연속 홈런을 터

양키스는 4회 찬스를 놓친 장면이 아쉬웠다. 2사 2루의 찬스에서 앤서니 볼프가 좌전 안타를 기록했지만, 다저스의 좌익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정확한 송구로 2루 주자 장칼로스 멘이 홈에서 아웃됐다. 양키스는 패색이 짙은 9회 2사 2루에서 알렉스 버두고의 2점 홈런으로 간신히 연패를 면했다.

올해 월드시리즈는 투타에 걸쳐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다저스와 양키스가 만나 '세기의 대결'로 불렸다. 그러나 양키스의 타선이 연일 침묵하면서 다저스가 일방적으로 앞서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양키스 타선을 이끄는 홈런왕 애런 저지가 부진하다. 월드시리즈에 처음 출전한 저지는 3경기에서 12타수 1안타 7삼진을 기록했다. 두 팀은 30일 오전 9시 8분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른다.

고봉준 기자



1회 초 투런 홈런을 터뜨린 LA 다저스 프리먼(오른쪽)을 오타니가 맞이하고 있다. 프리먼은 월드시리즈 5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EPA=연합뉴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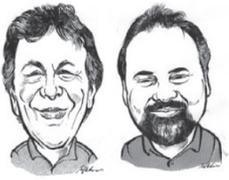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풀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teve: So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스티브: 그래 이번 주말에 뭐할 거니?
Matt: Not too much. My wife wants me to paint,
맷: 별 거 없어. 아내가 페인트 칠을 해줬으면 해.
Steve: The whole house?
스티브: 집 전체를 다?
Matt: No. Just touch up a few places like around the light switches.
맷: 아니. 전기 스위치 주변 같은 데 몇 곳 칠하는 정도야.
Steve: I think I'm going to catch a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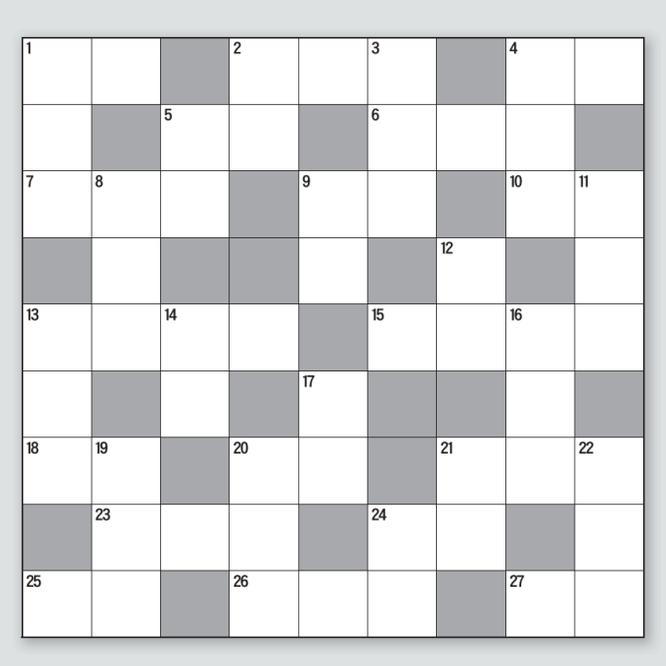
스티브: 난 영화 보러 갈까 봐.
Matt: Oh? Which one?
맷: 그래? 무슨 영화?
Steve: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스티브: 아직 안 정했어.
Matt: Well, give me a ring. Jane and I haven't been to a movie in a long time.
맷: 그럼 나한테 전화해 줘. 제인이랑 나도 영화 안 본 지 오래 됐거든.
Steve: Okay. I'll look in the newspaper and call you

later with some choices,
스티브: 알았어. 신문 찾아보고 볼 만한 영화 골라서 나중에 전화할게.
Matt: Sounds good. I'll talk to you later,
맷: 좋아. 나중에 통화하자.
기억할만한 표현
▶ catch a movie: 영화를 보러 가다.
"Let's catch a movie this weekend. What do you say?"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 어때?)
▶ make up (one's mind):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She has to make up her mind which college she wants to go to."
(그녀는 어느 대학을 갈 건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 give (one) a ring: (누구에게) 전화하다.
"If you want to play golf on Sunday give me a ring."
(일요일에 골프 치고 싶으면 전화 줘.)

touch up a room; 방을 조금 페인트 칠하다
Steve is talking to his friend Matt.
(스티브가 친구 맷과 얘기를 나눈다.)

낱말퀴즈



가로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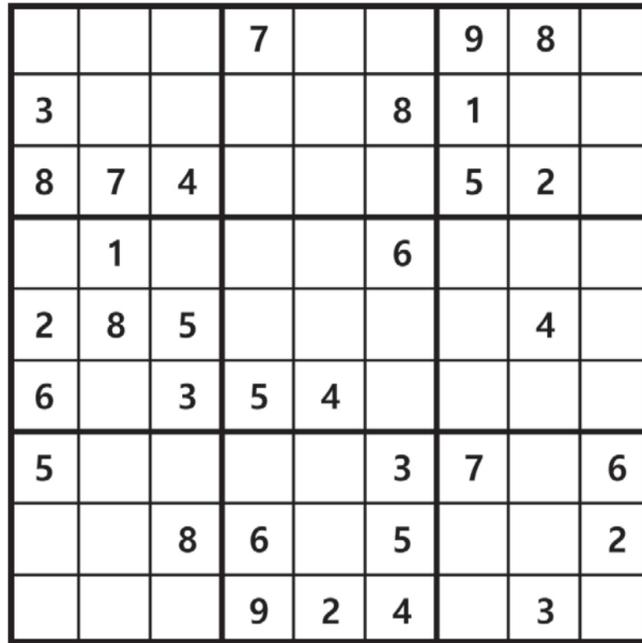
(1)닭이나 날짐승에게 주는 먹이 (2)먹고 난 뒤의 그릇을 씻어 정리하는 일 (4)술플 때 흘리고, 아주 기쁠 때도 흘리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 보시고/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새로이 나의 ~을 지어 주시다(김현승) (5)지나친 욕심. 사람이 ~하면 자기도 망치고 사회도 망친다 (6)차를 마시고 밥(반)을 먹는 일.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 (7)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9)무서운 내용의 꿈. 또는 꿈에 나타나는 무서운 것. 아이가 ~에 놀라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잔다 (10)아이 가질 것을 암시하는 꿈 (13)혼인 때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함을 지고 가는 사람 (15)논밭에 서서 새나 짐승을 쫓고 있어요 (18)차거나 쳐서 땅 위로 굴러가는 공 (20)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역으로, 전체 육지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21)더러운 물이 고여 빠지지 않고 썩어 있는 곳의 바닥 (23)몸을 오른쪽으로 90도 틀어 돌아서라는 구령 (24)밥을 푸고 난 술에 물을 부어 끓인 것 (25)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 ~을 캐러 가다

(26)강이나 내에서 사람을 건네주는 배 (27)가장 굵은 손가락

세로열쇠

(1)있나무나 검불 따위를 모아 놓고 피우는 불 (2)부끄러움을 씻음 (3)남에게 등을 대고 의지하거나 때를 썬. 자기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움 (4)많이 쌓였던 눈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 (5)지나가는 나그네 (8)설계도나 도면 따위의 복사에 쓰이죠. 미래의 일이나 사업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9)한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 주는 가르침 (11)끝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진 비 (12)반죽을 손이나 기계 따위로 가늘고 길게 뽑아낸 식품 (13)높은 대지나 산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땅 (14)귀물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 애교. ~을 떨다 (16)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위수의 남쪽에 세운 호화롭고 거대한 궁전 (17)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을 팔고, 돈을 받고 나그네를 묵게 하는 집 (19)보조개 (20)열거나 증기로 따를 내고 목욕을 하는 일 (21)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 (22)문을 바르는데 쓰는 한지 (24)우러러 공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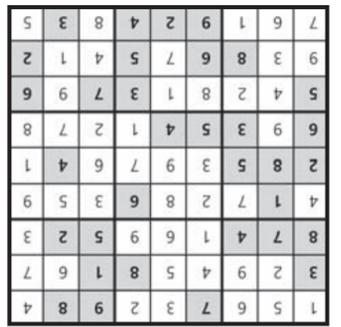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Subscription form with fields for Name, Address, Phone, Card Info, and Payment Method.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식스센스

카툰 필레이 THE SIXTH SENSE

금주의 주제
판타지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 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 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 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 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BB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정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 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수도꼭지 교체 ◆루핑수리/거러교체
◆싱크/디스포저 ◆사이드 리페어/창문
◆워터히터/물새는것 ◆데크 수리
◆하수막힘/변기교체 ◆드라이월/페인트
◆썩펌프 교체 ◆파워워시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교통사고 치료 전문



머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지역**

매매 기타 구입

잘되는 옷수선 전문점
급귀국 양도매매, 맨하탄버치 (213)268-9946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아침 양식국/달리버리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us.srotech.com **charcoal ondul** **차콜온돌**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 (Minas Gerais, Brazil)에서 생산된 최상의 품질 Green Propolis

미국FDA, Brazil SIF 승인 받은 제품
미국, 귀국 선물용 Wholesale Only (Min.dozen up)
Tel: (213)500-7363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억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권셀링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채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목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청해김 BLUE OCEAN LAYER 100 Sheets (Full Sheet) Product of Korea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술제지 최고급) **Hansol** (50roll / Box)

식당용 고급냅킨 **Dokdo Supply** (2Ply 3,000장)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Dokdo Supply** (2,000개 / Box)

ONE STOP 서비스로 POS 용지와 냇킨과 커스텀 젓가락 디자인 취급합니다.

독점

CENTREVILLE 싱글홈

방 5, 화장실 5, 1/2 5,908SqFt 5.38Acres
차고 3개와 멋진 캠브릿지 스타일 싱글홈
와싱턴 한인 장로교회(KCPC) 3분거리

\$1,799,000



GAINESVILLE \$676,000

**2011년 새단지 새집. 4,300 s.f.
2 car garage. Brick front.**



독점

FAIRFAX 타운홈

코스트코 근처, 2005년도 2 차고,
방3개, 화장실3 1/2, 3,220sq
잘 관리된 밝고 환한집

\$800,000



독점

MANASSAS 싱글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방3/화2/1,755sf
New Floor, Updated Bath & Kitchen,
Large Deck & Fence. "NO HOA"

\$54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심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